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 총재: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 446. 6200
gkcgmiusa@gmail.com
www.gmission.org

08.06.2023

2023년 8월 GMI-GKC 선교사 현황 : 60개국 326명 (자체 파송 76%)

GRACE 선교소식

2023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2023년 은혜한인교회는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다음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세계선교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1 세대를 통해 받은 세계선교의 비전과 열정이 다음세대로 이어져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모든 세대가 함께 이루어 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기홍 목사님 8월 선교일정

▶ 이스라엘 TD 22기 & 성지 답사 (8/29-9/7)
8월에 열리는 이스라엘 TD 22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과테말라

- 최용준 최재숙 선교사

수십년 동안 부정부패에 시달린 과테말라 국민이 이번에는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를 선호하는 잘못된 투표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00여명의 목회자들이 말씀을 통해 크게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중미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 중미교회들의 회개와 더불어 마지막 때 부흥을 준비하는 선교적인 교회로의 변화되는데 우리 GMI가 역할을 감당코자 합니다.



2023 중남미 목회자 컨퍼런스

벌써 8월입니다. 세월이 참 빠름을 느낍니다. 바쁜 사역 일정으로 조금은 벅차고 힘들기도 하지만 늘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동역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해 주시는 덕분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히 감당할만한 힘과 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신학교는 벌써 올해 12과목중 6번째 강의까지 잘 마쳤습니다. 모든 신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말까지 신학훈련을 잘 마치면 드디어 1기생들이 졸업하고 사역지로 나가게 됩니다. 1기생들이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최재숙 선교사가 별 차도가 없이 류마치스 관절염의 통증을 감내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류마치스가 완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과테말라는 4년에 한번 있는 대통령 선거가 6월 말에 있었는데 후보 중에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제일 득표를 많이 한 두 명의 후보를 놓고 8월 하순에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지난 5월 중미 목회자 컨퍼런스를 필두로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6개국의 목회자들을 선교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사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3 GMI 세계선교대회 광고

D-44

"여기, 섬기실 자리 있어요!"

공개 모집

총무팀

상황실, 개막식, KITCHEN & REFRESHMENT, DECO, 집회 순서 및 진행, 휴게실,

총무/관리팀

식당, REFRESH, 등록, 선교부스, 먹거리 부스, 상황실, 의료선교, 셋업, PALANCA(선물), 무료나눔 행사, MK프로그램(EM팀), 선교사 케어, 주차봉사, 가든 조망

등록/민박/호텔 팀

등록, 호텔, 민박, 안내데스크, 공항마중, 관광 가이드/도우미, WELCOME PACKAGE

KITCHEN & REFRESHMENT 팀

주방봉사, REFRESHMENT 간식, 먹거리 장터

사진/DECO 팀

참가자 개인 사진 촬영, 배경, 친교실, 분당

MEDIA/DESIGN 팀

역사자료 정리, 비디오, 사진 촬영, 웹사이트, 번역, 글편집, 뉴스레터

차량팀

공항 영접 짐 관리, 이동



2023 국제총회 및 세계선교대회 DATE: 9.18 (MON) - 21 (THUR), 2023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Your service shall shine brightly in heaven as the sun!

선교대회 기간

9.18(MON)-21(THUR), 2023

주제

"중단할 수 없는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자" (마24:14)

문의

은혜한인교회 선교부
GKCGMIUSA@GMAIL.COM

함께하는 기도

- GMI 선교사들이 다 모여 화합하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 세계선교 마무리 비전을 심어주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베네수엘라

- 김도현 강미애 선교사

8월 6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교회 청년들과 아마존 선교를 갑니다. 아마존에서 사역하는 조엘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마존 사역 후에 3, 4일동안 아푸레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신학교 목사님을 방문하여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더불어 9월에 시작할 글로벌 리더쉽 스쿨 4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80명의 대학생들, 10여명의 스태프들과 함께 3개월간 훈련합니다. 이 모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콜롬비아 3기 목회자 사랑의 불꽃
6월 19부터 22일까지 한기홍 목사님께서 스피리쳐 리더로, 이영국 집사님이 렉터로 섬겨주셨습니다. 73명의 콜롬비아 목회자들을 모시고 39명의 한국팀멤버들, 32명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팀멤버가 하나가 되어 함께 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간증 시간을 통해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포기하려 했으나 사랑의 불꽃에서 경험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계속 목회하기로 순종하겠다는 간증과 결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의 불꽃을 통해 계속해서 콜롬비아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베네수엘라 목회자 사랑의 불꽃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9기 베네수엘라 목회자 사랑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한국여권으로만 올

수 있는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은혜한인교회에서 8분의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섬겨 주셨습니다.

79명의 현지인 담임 목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내년 1월에 신학교 5기에 입학하실 예정입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에라리온

- 김성림 배현란 선교사

14년 만에 처음 열린 GMI & PGM ENCOUNTER 1기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마쳤습니다. 한달 전부터 전 교인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으로 저희 성도 및 교사 50명,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협력교회 목사님들 16명 그리고 저희 지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 그리고 장로님들이 20명 참석하여 총 86명의 캔디들과 미국 본 교회 팀멤버 14명 한국 팀멤버 2명이 2박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함께 하였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사랑이라 모두 너무 행복해 하였고 시간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칠세라 모두 집중하고 필기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인카운터를 마치고 지방에서 또 프리타운에 있는 협력 목사들에게 매일 감사의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환대와 말씀의 축제는 처음이었다. "다음에는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곳 멀리까지 와서 애써주시고 사랑과 헌신을 베푸신 모든 팀멤버들에게 저희 성도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인카운터를 받은 86명의 캔디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이들이 다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의 어린 아이들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현재 국제학교 학생들의 정원은 1,156명입니다. 이번에 새 학기에 입학할 학생들은 약 2,500여 명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수의 아이들을 모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

라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선별하여 양육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여 이 땅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학교인 만큼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귀한 어린 영혼들을 잘 인솔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 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데 이 학교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더불어 이 일을 위해 계속해서 정부 및 교육 관계자들과 좋은 관계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좋은 교사와 학생들이 계속해서 선발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

<1분당상 119-8월호>

- 김대규 장로



몰아쳐도 상관없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구원의 방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참 된 교회인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 동거할 수 있는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공평한 조건이 열려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이중적 의미라기보다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으로 연합된 하나이다. 곧 우리가 예식적으로 받는 물세례(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적인 세례(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하여 주와 함께 장사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롬6:3) 성령으로 거듭나(성령세례) 새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롬6:4).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하나님의 백성)로 변하여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 동거할 수 있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리될 때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며 장차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의 삶은 의와 성결과 거룩이며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성결이다. 성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이다. 우리가 거듭날 때 원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용서를 받아 주님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탈 수 있는 두 가지 배가 있다. 하나는 특출한 방주이고 다른 하나는 첨단화 된 배이다. 방주의 특징은 닻이나 돛이 없다. 엔진도 없다. 있는 것이 라고는 몸통뿐이다. 반면 배에는 엔진이 있고 돛도 있고 나침반, 방향타, 모든 것을 구비했다. 아무리 보아도 방주보다는 배가 훨씬 안전하고 편하다. 마음대로 조정하여 목적지에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선호한다.

그런데 시설이 완벽한 배도 거센 풍랑에 좌초되어 침몰한다. 그러니 몸통만 있는 방주는 더욱 위험스러울 수밖에 없어 찾는 이가 드물다. 더욱이 방주는 바람이 부는대로 이끌리게 되어 있어 원하는대로 움직이게 할 수가 없다. 그냥 맡기고 있어야만 한다. 난감할 뿐일 것이다.

하지만 방주는 침몰하지 않는다. 방주를 움직이는 바람은 특출하다. 성령이 바람과 같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질 때의 그 바람이 방주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그렇다. 이는 노아의 방주가 말해준다.

방주인 테바(תֵּבַת נֹחַ)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길로 가야 한다. 세상에 모진 폭풍우가 아무리

의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매일같이 자범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

이 자범죄는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중히 보시는 부분이 죄를 회개하느냐인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구원의 방주 안에서 온전히 살려면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을 열어주신 것이 구원의 방주인 것이다.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인 것이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이 세 상을 이겨내며 언제나 의와 화평과 희락 속에 있어야 한다.

왜 그럴까? 이 땅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를 보고 따라서 두려워 할 복이기 때문이다. 고로 우리는 이 복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시도록 해야 한다.

구원의 방주는 지금도 쉬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는 주와 하나되어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넓혀 나가야만 한다. 이것이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인 것이다.